



2024년 07월 17일 03시 54분

YEOSU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진로진학자료실	3
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수능 이과생 비율 최고치 달할 듯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3
첨부파일(1)	3

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수능 이과생 비율 최고치 달할 듯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작성일 2023.03.23 14:16 등록자 최은미 조회수 75

첨부파일(1) 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수능 이과생 비율 최고... 7 hit/622.3 KB [다운로드](#)

표제

2023년 03월 23일 목요일 A25면 문화

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수능 이과생 비율 최고치 달할 듯

2024학년도 입시 달라진 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2024학년도 대학 입시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고3 1학기는 내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출이다. 23일에는 올해 첫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다. 올해 대입에선 학교생활기록부(학성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영역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이 많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대입 전형 변화를 정리했다.

● 자소서 사라지고, 수능 경쟁도 미반영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학생부 반영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한 학기당 1건의 반영할 수 있었던 수능 경쟁은 올해부터는 기재할 수 없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도 대입 서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이나 장점을 드러낼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 대신 내신 성적과 교사가 기록하는 '재무능력 및 특기사항'(재특) 등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재특에는 각 교과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성취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우연한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업 시간에 발표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의 체험활동 항목 중 교과 정규 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입시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자신의 역할 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는 정공과 관력이 없더라도 리딩부, 성실성 등 중요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지역균형전형 확대

수시모집에서는 주요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종교학원이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대입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학교 배치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기록하는 '재특' 중요성 커져 교내 동아리 활동 여전히 입시 반영 수도권 지역 선발 2997명 늘어나 서울 주요 16개대 정시 40% 이상 이과생 출원 현상 더욱 심해질 듯

에 띈다. 서강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3개 과목 등급 합 6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기준을 낮췄다. 성균관대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영역 중 3개 과목 등급 합이 7 이내'로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 선발 인원은 1만5785명으로 지난해 대비 2997명 늘었다. 올해 지역균형전형을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총 46곳이다. 동덕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해당 전형을 새로 도입했다.

지역균형전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올해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한 곳이 많다. 영세대는 33 개교 인원의 5% 이내에서 학교장 최대 10명은 기존 이과생, 규정이 작은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명여대는 '고3 재적 학생의 10%' 기준을 앞세웠다.

올해 신설된 전형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과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학생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해 학생 472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를 반영한다.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

단위: 명, 19%계 일반대 기준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문·이과 비율

단위: %



2024학년도 대입 미반영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교과 활동	영재·발명 교육 실적 미반영	봉사 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활동 미반영	수능 경쟁 특목 활동	미반영

수시에서는 성균관대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내에 '과학인재전형'을 신설한다. 1단계에서 서류 평가도 정원의 7배수씩 뽑고, 2단계 면접에선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단국대는 면접 시험을 도입한 DKU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 이과생 비율 50% 넘길 듯

올해 대입에서 4년제 일반대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30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 줄었다. 비수도권 대학(21만1989명)은 5353명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 대학(13만2307명)은 555명 늘었다. 정원외 79%를 수사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이 늘고 보면 정시 비중이 35.8%로 높아지고,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상위권 학생

일수록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정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입시업계에선 문·이과 통합수는 3년 차인 올해 이과생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에서 이과생이 교과 지원과 상위권 학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과 열풍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45.8%였던 이과 비율은 지난해 50%까지 올랐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이 비율이 5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생들은 25일 치러지는 학력평가로 통해 더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려 한다. 고3 학생들이기는 이번 시험이 통합수능 형태는 처음이 될 것이다. 입시호 정보학원 대표는 "자신이 내신과 수능 중 어느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진단해보고, 남은 기간 수시의 정시 중 어느 전형에 집중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sb@khan.com

목록

